

불교 포교를 위한 민족지 연구방법 활용에 대한 고찰

: 불교 포교의 관점에서 본 문화인류학

효석스님(최윤희)*

1. 들어가는 말
2. 불교 포교의 개념과 역사
3. 문화인류학의 개념과 역사
4. 포교를 위한 민족지 연구방법
5. 포교 연구자와 질적 연구자에 대한 비교
6. 나가는 말

■ 한글요약

불교포교사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포교사는 붓다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포교 대상의 문화와 특성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 문화는 사람들이 정신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제도와 사상,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포교 연구는 바로 현지조사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일이다. 현지조사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포교사가 포교를 위해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근감 즉 라포(rapport)를 조성하는 일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라포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현지인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 봉녕사승가대학 부교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그들의 관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익힌다. 그런 후에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과 해석을 한다.

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는 추구하는 지향점과 방법론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포교사의 목표는 붓다가 설하신 고(苦)과 고로부터의 해방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고 이익 되게 하는 것이며, 문화인류학자의 목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익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줄여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본 소고의 목적은 문화인류학자들이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족지 연구방법들을 포교사가 어떻게 포교에 활용할까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포교일선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포교와 문화인류학의 개념과 역사를 먼저 짚어보고, 포교를 위한 민족지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난 후에 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여 민족지적 연구방법이 포교에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고찰한다.

주제어 ● 포교, 포교사,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자, 민족지, 포교방법, 현지 조사, 참여관찰, 인터뷰, 질적 분석과 해석

1. 들어가는 말

포교현장에서 포교사들은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받고 그들과 친근감을 쌓게 되면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포교사의 역할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붓

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교 대상의 연령, 성향, 문화와 특성 등을 알아야 한다. 문화는 사람들이 정신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제도와 사상,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어서 포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관찰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문화인류학에서의 현지조사는 연구자가 낯선 장소에 들어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불교 포교사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포교현장에서 포교대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근감 즉 라포(rapport)를 조성하는 일이다.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은 라포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현지인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관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익힌다. 그 후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을 불교 포교사도 포교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불교 포교 연구자들은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잘 숙지하고 그것을 차용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화인류학 연구자들이 현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을 불교 포교 연구자가 현장포교에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불교포교와 문화인류학의 개념과 역사를 먼저 알아보고, 포교를 위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민족지와 문화기술지의 관점으로 제시하고 난 후 불교포교 연구자와 문화인류학 연구자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여 인류학적 민족지연구 방법론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불교 포교의 개념과 역사

조계종 종헌종법에 나타난 ‘포교’에 대한 정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이해·납득·수용케 하고, 함께 실천하는 모든 활동과 매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포교는 불교의 모든 수행제도, 사찰안팎의 모든 불교적 행위 및 활동을 포함하며, 불교와의 만남을 성취시키고 불국토의 이상세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을 말한다.1) 포교는 경전에서 교화, 전도, 전법 등의 단어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교화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종단에서는 포교의 목적을 ‘불타의 교법을 널리 흥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함에 있다’라고 정하고 포교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2).

포교의 역사는 붓다의 전도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붓다가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한 후에 붓다에게 귀의하는 제자들이 늘어났다. 첫째 제자는 다섯 명의 비구들이었고, 야사가 50명의 무리와 함께 붓다에게 귀의했다. 가섭과 3형제들이 1,000명의 무리와 함께 붓다에게 귀의하였고, 사리불과 목건련이 200명의 무리와 함께 귀의하여 총 1,255명이 되었다. 이는 경전에서 많이 언급되는 상수대중(常隨大衆)이다. 붓다는 야사와 그의 동료 50명의 무리들을 교화시킨 후에 다음과 같이 전도선언을 했다.

비구들이여,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한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

1)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법제분과위원회(2000), 310.

2) 법제분과위원회(2000), 311.

정한 범행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으나,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세 나니가마(장군촌)로 가리라.³⁾

붓다가 전도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교’란 ‘붓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주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행하라’는 것이다. 붓다는 전도 선언 이후에 45년 동안 유행하며 법을 설했고, 그의 제자들은 오늘날까지 전법에 힘쓰고 있다.

한국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포교의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현대 포교의 역사를 간단히 고찰해 보면,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 35년 시대의 한국불교는 왜색화로 혼란을 겪었다. 그 와중에도 도심 포교당이 많이 생겨났는데, 1921년 원산에 ‘석왕사 포교당’이 설립되었고, 1922년에는 범어사의 ‘진해불교교당’과 공주에 ‘공주본말사 포교당’이 세워졌다. 이후 인천불교당(1923년), 대원사 산청포교당(1923년), 제주포교당(1925년), 통도사 마산포교당(1927년), 묘향산 보현사 연변포교당(1927년), 은해사 영천포교당(1927년), 법주사 충주포교당(1929년), 왜관포교당(1932년), 통도사 울산포교당(1935년), 상주포교당, 영덕포교당(1934년), 법룡사 안동포교당, 성불사 사리원포교당(1936), 고운사 안동포교당, 해인사 선산포교당(1938) 등이 창립 또는 개축되었다. 1927년 8월 동화사에서는 제 1차 포교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조선 불교 사업연구회의 조직, 포교 기관지 발행, 포교 의식의 방법, 예식, 교전의 편찬, 교육 제도 등 기존의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모색했다. 교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2차 대회는 1928년 3월에 있었고, 2차대회에서는

3) 『雜阿含經』(K39, 1096 『繩索經』)

1회 대회의 안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1920년대부터 시작된 도심 사설 포교당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기도 했다.⁴⁾

해방 직후에는 불교계에서 불교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 통일이라는 과제와 왜색불교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958년에 일본 유학생 출신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불교 교도회’를 출범시켜 전국 순회법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1960년에는 고봉스님을 계사로 ‘대한불교 조계종 거사림’이 ‘달마회’로 개칭되어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55년에는 황이선 보살이 중심이 되어 ‘원각회’를 창립했고, 1956년 말에는 ‘마야부인회’가 창립되었고, 1957년에는 ‘반야부인회’와 ‘선우회’가 창립되었다.

1948년에는 각종 불교학생회의 효시가 된 ‘조선불교 학생회’가 창립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을 계기로 전국 대학에서 불교학생회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대한불교청년회’가, 1963년에는 전국 단위의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창립되었다. 1960년에는 ‘룸비니 학생회’가 창립되고, 1966년에는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서서히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 청년 포교, 군 포교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재가불자 단체를 중심으로 1949년에는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의 <불교공보>가 창간되었다. 1950년에는 <동대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1957년에는 <녹원>, <불교세계>가 발행되었고, 1958년에는 <정토불교>, 1959년에는 <현대불교>가 각각 창간되었다.

종단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은 1962년 통합 종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1966년 불교계는 ‘한국불교 중흥의 해’라는 목표 아래 도제양성, 포교, 역경을 3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1966년부터 비구와 대처 간에는 법정 투쟁이 계속되면서 1979년에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4)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1995), 225-226.

분열되었다. 이러한 분열은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등 다양한 분파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 포교당에서는 신도들의 각종 요구에 부응하면서 불교교양대학, 복지 활동, 학술 활동, 신행 활동, 장학 사업 등 새로운 도심 포교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다.⁵⁾

1980년대는 도심포교당이 더욱 활발하게 건립되었다. 강남구, 은평구, 구로구 등 도심 한 가운데에 포교당이 건립되어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다. 도심 속에 현대식 건축과 사찰의 전통미를 가미한 건물이 들어섰고, 그곳에서 연령별, 계층별, 분야별로 구분되어 맞춤형으로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 포교원에서는 2010년에 들어와서는 포교원에서 각 분야별 전법단을 출범시켜 조직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문화인류학의 개념과 역사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cultus*에 그 어원을 둔다. “밭을 갈아 경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문화’는 ‘문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물질적·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말할 경우에 이 두 단어는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문화’는 대체적으로 종교·학문·예술·도덕 등 정신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문명’은 보다 더 실용적인 생산·공업·기술 등 물질적인 방면의 활동을 말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Tylor)는 『Primitive Culture』⁶⁾

5)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1995), 227-242.

에서 ‘넓은 민족지적 의미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기타 사회성원으로서는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라고 정의했다. 문화는 가치, 신념, 인식 등의 요소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유된 인식이 다시 그들의 사회적 행위에 반영되면서 전체 사회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⁶⁾

미국의 인류학자인 코탁(Kottak 1994)은 『Anthropology』에서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되고(learned), 공유되고(shared), 양식화되어(patterned)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transmitted)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여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문화는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학습을 통해 전해지는 결과물의 통칭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배우는 어떤 지식의 총체라고도 할 수는 없다. 비록 공유된 형식일지라도 그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거나, 개인적은 특질이나 습관으로만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화’라고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화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집단은 주로 가족, 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 학교, 종교단체 등이다. 따라서 절에서 행해지는 법회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는 불교문화를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 나아갈 수 있다. 불교 포교는 교세를 확장한다는 작은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뿌리를 이루는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해 간다는 의미도 있다.

인류학 즉 anthropology은 그리스어로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nthropos’와 ‘학문,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logos’가 합쳐진 말

6) Tylor(1871), 1.

7) 유태용(2002), 11.

로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 정의된다. 인류학은 크게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을 연구하는 생체 인류학과 문화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으로 나뉘지는데, 본고에서는 문화인류학에 대해서만 고찰하겠다.

문화인류학은 다양한 민족의 생활양식인 문화와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구조를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비교하는 학문이다. 문화인류학은 세계 각지의 문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은 연구실에 앉아서 문헌이나 제3자가 가져다주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조사’라는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문화인류학자는 자신의 연구지역을 선정하고 현지(field)에 들어가서 현지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현지주민의 생활을 관찰하고 면담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지조사’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방법이다. 이와같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여러 다른 민족의 사회조직이나 생활양식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며 체계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문화인류학에서는 ‘민족지(民族誌, ethnography)’라고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정신에서 나온다. 종교도 정신적인 과정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인 일련의 과정과 결과인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문화인류학이다. 문화 인류학은 연구자와는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다. 서구 열강들의 항해술의 발달로 그들은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와같이 신대륙의 원주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주로 항해자, 선교사, 식민 정치가, 탐험가 등이었다. 초기에 그들의 기록물은 신대륙의 원주민들을 식민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초창기 기록물을 시발로 해서 학문적으로 승화된 이론이 바로 19세기 후반의 문화진화론이다. 요한 제이콥 바호펜(Johann Jakob Bachofen, 1815~1887)과 루이스 헨리 모건(Lewis Henry Morgan, 1818~1881) 그리고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경(Sir Henry James Sumner Maine, 1822~1888)과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경(Sir Edward Burnett Tylor, 1832~1917) 등의 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주도하는 사회 제도인 법, 혼인제도, 가족제도 등 인류 문화를 진화론적으로 도식화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19세기 문화진화론자들의 작업은 실증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변(思辨)과 추론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탁상공론만 한다는 의미의 ‘안락의자 인류학자’ 즉, 책상머리에서만 연구하는 인류학자로 치부된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문화인류학의 대부인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 1858~1942)는 이러한 문화진화론과 그것에 기초한 인종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한 연구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는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시작했다. 많은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알프레드 루이스 크로버(Alfred Louis Kroeber, 1876~1960)와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 1884~1939), 루스 풀턴 베네딕트(Ruth Fulton Benedict, 1887~1948)와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 1901~1978)가 바로 그의 제자들이다.

인류학의 시작은 항해사와 탐험가, 선교사들의 기록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물은 서양 우월주의와 인종주의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인류학이 학문으로 확립 발전되면서 이러한 절대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인류학자들은 한 사회의 여러 제도와 문화적 요소가 어떤 형태로 서로 관계 지어졌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⁸⁾ 즉, 각 공동체의 문화는 서양인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가 아닌 각 공동체의 사회, 문화, 전통적인 맥락에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레드클리프-브라운(Alfred Reginald Radcliffe-Brown, 1881~1955)과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Kasper Malinowski, 1884~1942) 등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인류학자들이 활동하면서 인류학을 정식 학문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말리노프스키는 인류학의 역사에서 인류학 고유의 방법론을 확립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트로브리안드 군도(Trobriand Islands)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경작법과 농경의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말리노프스키는 트로브리안드의 생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경작 작업’과 ‘관련 주술’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중심축으로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주로 농사를 짓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주술도 수행한다. 말리노프스키는 이 책에서 트로브리안드인들이 이러한 농경 ‘작업’과 ‘주술’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말리노프스키의 원시적 경작 형태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경제적 본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트로브리안드 사람들과 오세아니아 문명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참여관찰을 통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인류학의 핵심적 연구 방법으로 확립시켰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과정을 통해 20세기 초중반의 방법론으로는 현지조사, 이론으로는 미국의 문화, 인성학과와 영국의 구조기능주의가 인류학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인류학은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었고 대학의 제도적 틀에도 안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8) 한상복 외 2인(1998), 53.

4. 포교를 위한 민족지 연구방법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민족지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민족지적 연구방법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기인한 것인데, 온전한 한 부족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연구를 위해 먼저 한 지역이나 공동체의 민족주의적 관습이나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며, 지리적 위치도 잘 파악해야 한다. 이와같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대등한 존재로 연구한다. 양적 연구가 방법상 연구대상보다는 연구자를 우위에 두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질적 연구 대상자들의 민속적인 모습이나 지식이 과학적 지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풍습과 문화에 가치를 부여한다. 침술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침술로 질병을 고쳐 왔으며, 미신이라는 비난을 사면서도 무당의 곳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다.⁹⁾

질적 연구자는 연구대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현지 또는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한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해가기 위해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이 잘 모르는 대상이나 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 없다. 질적 연구 도중에 잠정적 가설들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수정되고,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9) 조용환(1995), 14-15.

질적 연구자의 목적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편견 없이 미지의 세계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양적연구가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에 맞는 이론을 모색하고, 연구자가 경험하는 ‘실제의 이론적 해석(interpretation of the reality in theory)’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귀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다.¹⁰⁾

그렇다고는 해도 질적 연구에서 학문세계의 이론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급적이면 현지 세계의 내부에 존재하는 민속적 규칙과 규율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변수들을 수용해서 연구 자체를 재조정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그러한 열린 자세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문화인류학의 기본 연구 방법은 현지조사와 참여관찰, 면담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여 기술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소고에서는 불교 포교현장에서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료를 얻고,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불교포교를 위한 현지조사

문화인류학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모두 ‘사람’이다. 그래서 연구대상을 ‘정보제공자’, ‘현지인’, ‘참여자’,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문화인류학 연구를 위한 현지와 같이 불교포교를 위한 현장도 포교

10) 조용환(2016), 32.

연구자와 포교 대상이 모두 ‘사람’이다. 포교 연구자는 설법을 하는 법사일 수도 있고, 설법을 듣는 대중의 일원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설법을 하는 법사가 연구자가 될 경우를 초점으로 맞추겠다. 연구 대상은 법사가 있는 장소로 법을 들으러 온 대중일 수도 있고, 법사가 법을 전하기 위해 직접 나선 장소로 유행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대중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연구자는 더욱 긴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잡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법을 떠나는 부루나에게 붓다가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다.

부루나가 붓다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미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서쪽 수로나지방을 유행코자 합니다.” 그러자 붓다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서쪽 수로나 사람들은 흉악하고 경망하며 욕도 잘한다고 사납다고 들었다. 그들이 너에게 그러한 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부루나가 아뢰었다. “그 사람들이 면전에서 저를 흉악하게 꾸짖어 모욕한다면 이들은 현명하고 지혜가 많은 탓으로 나에게 흉악하고 사납게 굴며 나에게 모욕은 하면서도 손이나 돌로는 때리지 않는 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흉악하고 경망하며 사나워서 너를 욕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웬찮겠지만 손이나 돌로 때리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루나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린다면 그들은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탓으로 손이나 돌로 때리기는 해도 무기로 해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들이 무기로 너를 해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루나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무기로 저를 해친다면 그들은 현명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기로 나를 해치기는 하면서도 죽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붓다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루나가 붓다께 아뢰었다. “만약 그들이 저를 죽인다면 그들은 현명하고 지혜가 있는 탓으로 내 썩은 몸으로 하여금 해탈하

게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일이다. 너는 능히 인욕을 배웠으며 수로나 사람들 사이에 머물 만하다. 너는 거기에 가서 제도 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며 안심을 얻지 못한 자를 안심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하는 자를 열반에 들게 하라.”¹¹⁾

이와 같이 경전에 등장하는 부루나의 각오는 현지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인류학자의 각오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현지조사는 연구자가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낯선 장소에 들어간 연구자는 그곳의 낯선 문화를 관찰하고 있지만, 동시에 낯선 문화 속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이방인과 같은 연구자를 경계하면서 관찰한다. 그래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간 연구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친밀감 조성 즉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낯선 문화에 들어간 이방인이 낯선 문화의 언어, 음식, 복장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서히 동질감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지인들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친밀감이 조성되며 현지인들에게 비로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때부터 낯선 문화에 들어간 연구자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서서히 참여 관찰하고, 자연스러운 면담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정한 정보제공자의 도움을 받는데, 이때 정보제공자는 낯선 문화 속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정보제공자가 그 낯선 문화에서 인지도나 신임이 낮은 사람이라면 조사자까지도 그렇게 취급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지조사는 낯선 문화에 들어간 사람들의 용기와 불임성, 감수성과 이해력, 적응력과 인내심, 임기응변과 침착성, 날카로운 관찰력과 판단력 등이 요구된다.

11) 『雜阿舍經』 (T2, 89b)

한 연구자가 연구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야 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한다.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포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행동과 말을 연습해야 한다. 연구자는 낯선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같이 현지조사에서 친밀감 조성은 포교연구자나 문화인류학 연구자에게 있어서 모두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친밀감 조성은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얻어 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문화인류학자는 현지에서 오랜 시간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며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인류학자는 현지인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 된다. 포교현장에서 포교를 목표로 하는 포교사들도 또한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며, 그들에게 편안하고 따듯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포교 현장에서의 참여관찰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란 말 그대로 참여하고 동시에 관찰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가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것이다. 참여관찰은 처음에는 넓게 시작하여 좁게 초점을 맞춘다. 참여관찰의 첫째 목적은 현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지인의 당연

한 일상생활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주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관찰의 처음 부분에서는 현지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현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확립되면, 이제는 연구의 초점을 자신의 특정 연구 주제로 좁혀 가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관찰에서 연구자는 참여하면서 생기는 내부인의 입장과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외부관찰자의 입장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두 입장은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현지와 현지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모두 필요한 요건이다.¹²⁾

낯선 현지에서 참여관찰을 시작하는 연구자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현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지역사람들의 언어를 먼저 익혀야 한다. 그와같이 포교현장에서도 포교사가 스님일지라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쓰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쓰는 줄임말을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요즘 유행하는 가요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의 이름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참여관찰은 현지인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첫째는 비참여 관찰, 둘째는 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셋째는 참여자로서 참여관찰, 넷째는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그리고 다섯째는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이다.

‘비참여에 의한 관찰’은 연구 참여자와 상호작용 없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연구 참여자를 관찰하는 것이다. ‘완전한 관찰자로서의 참여관찰’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은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연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이나 면담을 하는 형태의 관찰을 말한다. ‘관찰자로서의 참여관찰’은 연구자는 연

12) 윤택림(2013), 55-56.

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현장에 들어간다. 연구 참여자는 제보자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중도적인 정도의 참여를 한다. 연구 장소에는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에서는 연구자는 현지에서 연구 대상과 함께 연구 지역이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하여 관찰한다.¹³⁾ 마지막의 경우는 수련회라든지 템플스테이를 함께 참여하면서 포교현장에서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여관찰을 시작하면 연구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나 현지 또는 현지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연구자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관찰할 때는 항상 메모장, 현지조사 노트, 녹음기, 레코더, 카메라, 캠코더 등을 가지고 다니며 현지를 배회하면서 관찰하고 인터뷰할 필요가 있다.¹⁴⁾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 과정에서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포교 현지에서 연구대상과의 면담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면담(Interview)은 연구자가 현지에서 어느 정도 참여관찰을 통해 사람들과의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에 수행되는 것이 좋다. 연구자는 자신의 주제에 대하여 더 심도 있고 면밀한 자료

13) 김영천(2017), 240-241.

14) 윤택림(2013), 66-67.

를 얻기 위해서 면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사람들의 겉모습과 생활모습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생각과 감정까지는 읽어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¹⁵⁾

연구자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찾아내기 위해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의도 등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관찰자의 출현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인해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실 상황에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공동체를 조직해온 방법도 관찰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러한 것을 현지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면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¹⁶⁾

면담의 유형은 크게 비공식적 면담(informal interview)와 공식적 면담(formal interview)이 있는데, 공식적 인터뷰는 다시 비구조적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와 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으로 나뉜다.

비공식적 면담은 연구자가 인터뷰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를 말하며,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에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공식 면담 중에서 비구조적 면담은 비체계화된 면담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폭넓고 개방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며, 주제에 관한 지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삽입하는 방법이다.¹⁷⁾ 구조적 면담은 체계적인 면담을 말하며, 이것은 연구자가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된 면담 계획표(interview schedule)를 미리 준비하여 사용하는 면담 방

15) Patton(1990), 278.

16) Patton(1990), 196.

17) Crane and Angrosino(2000), 87.

법이다. 이러한 면담 계획표는 현지조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 빠진 것들을 완결하도록 해주는 최종 요약의 도구(summation device)로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같은 체계화된 면담의 한 유형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표준화된 설문지는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¹⁸⁾

앞에서 언급된 여러 종류의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현지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며 구술자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구술자들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을 끊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때 면담을 진행하는 면담자는 말을 적게 할수록 더 좋은 인터뷰 결과를 얻게 된다.

면담할 때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녹음을 원하지 않는 구술자일 경우는 면담자가 집중해서 들으며 노트에 기록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면담자의 작은 시선회피로 인해 구술자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면담자는 구술자가 모르게 녹음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면담 중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구술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면담을 통한 연구는 되도록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정보는 주관적일수록 더 유용하다. 특히, 인터뷰 자료는 주관적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면담이 아니면 구술자의 주관적 생각과 의견, 사회와 구조에 대한 해석, 사건의 의미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4)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

질적 연구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사람들에

18) Crane and Angrosino(2000), 85.

19) 윤택림(2013), 129.

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러한 자료와 정보를 먼저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은 분석과 해석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된다. 기술 작업에서 연구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육하원칙(六何原則, 5W1H)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통해 얻은 이야기를 파악해서 서술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에 대한 대답은 기술의 과정에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질문이 기술의 성격에 대한 질적 연구자들의 입장 차이를 낳는다. ‘왜’에 대한 대답을 분석이나 해석의 과제로 미루는 연구자에게는 기술이 분석과 해석의 준비단계로 간주되는 반면에, 기술에서도 ‘왜’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에게는 기술이 별도의 작업이 될 수 있다.²⁰⁾

양적 연구 못지않게 질적 연구에서도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사실(fact), 항목(item), 부분(part), 요인(factor/component), 요소(element), 정의(definition) 등을 사용한다. 상위 수준의 분석 도구로 목록(list), 눈금(scale), 표(table), 행렬표(matrix), 분류표(taxonomy), 계보(family tree), 그림(figure), 도식(diagram), 그래프(graph), 과정표(process/flow chart), 순환표(daily/monthly/yearly cycle), 통로표(path/channel),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인과사슬(causal chain), 프레임(frame), 지도(map), 관계망(network) 등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자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지만, 그것에 자료를 짜 맞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를 짜 맞추는 행동은 질적 연구의 개방적이고 해석적이며 상대주의적 정신이나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²¹⁾

질적 자료의 분석은 ‘설명’을 지향하지만, 해석은 ‘이해’를 지향한

20) 조용환(2016), 51.

21) 조용환(2016), 60-61.

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해석’ 작업은 생생하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체험의 공유를 추구하는 ‘이해’의 과정이다.²²⁾ 기어츠(Geertz)는 ‘해석’을 “사람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국지적 이론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일”이라고 하며, “행위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원천적 생성 구조를 함께 제시하는 일”²³⁾이라고 한다. ‘해석’은 그와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나누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경험(experiencing the experience)”²⁴⁾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절차를 거쳐 얻는 자료와 정보라고 해도 그 자료와 정보는 동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연구자가 만나는 사람, 그들과 나누는 대화, 수집되는 정보가 모두 다르고, 특히 그것의 분석과 해석 방법은 연구자마다 더더욱 다르다. ‘해석’은 질적 연구의 가장 ‘주관적인’ 영역이며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해석’은 마음을 열고 뜻을 나누기 위해 ‘대화의 창구(窓口)’를 만드는 일이다.²⁵⁾

질적 연구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결과이다.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인간에 관련된 문제에는 객관적인 정답이 있을 수 없다. 300만 불자가 줄어들었다는 양적 연구의 수치를 통해 우리는 불교 포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왜 불자가 줄어들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수치를 통한 양적 연구나 경전을 통한 문헌 연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포교 현장으로 들

22) 조용환(2016), 62.

23) Geertz(1973), 27.

24) Clandinin and Connelly(1994), 413-427.

25) 조용환(2016), 68.

어가서 사람들로 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젠 포교 방법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한 포교 연구자가 연구하는 주제가 수많은 현실적 포교 문제 가운데 ‘하나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해석에 불과할 지라도 겸허한 자세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포교 연구자야말로 진정한 질적 연구자이며, 그들이 찾아내는 작은 답들이 모여 결국에는 포교 활성화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답으로 모아질 것이다.

5. 포교 연구자와 질적 연구자에 대한 비교

포교 연구자와 포교사는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포교 연구자와 포교사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기로 한다. 그래야 참여, 관찰, 면담 등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내는 질적 연구자 즉 인류학적 연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기술하는 내용에는 포교 연구자와 포교사, 질적 연구자와 문화인류학적 연구자를 동일한 의미로 상정하고 기술하겠다.

1) 차이점

포교사는 신심을 갖고 불교를 널리 홍보하는 사람들이며, 포교는 단순한 불교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포교는 사람들이 삶의 내용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교사 자신이 먼저 불자로서 자신감과 긍지, 출세관을 향한 삶의 기쁨과 환희를 가져야 하며, 포교는 바로 그러한 기쁘고

환희로운 불법(佛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한다.²⁶⁾

질적 연구자 또는 문화인류학적 연구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도 탐구한다. 문화인류학자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현지조사를 통해 낯선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면담하면서 답을 찾아내려 한다. 그들의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불교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는 현장이나 현지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최종 방향에 차이가 있다. 포교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서 그들이 신념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문화인류학자는 현지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경청하며 그들에 관한 정보를 모아 분석함으로서 현지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불교포교사들은 그들의 신념을 밖으로 향해 전파하려는 사람들이고, 문화인류학자는 현지사람들의 신념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정보와 데이터를 끌어 모으려는 사람들이다. 이 두 그룹은 최종 목표의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불교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는 추구하는 최종 목표의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최종목표의 시간도 다르다. 불교포교사들의 최종 목표 성취 시간은 문화인류학자들보다 한 단계 늘어난다. 포교사들도 처음에는 문화인류학자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다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목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 전 단계까지는 문화인류학자들과 같이 현지인들을 관찰하고 경청하면서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

26)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1999), p.224.

을 똑같이 거쳐야 한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포교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시간에는 문화인류학자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현장의 사람들이 다 파악되고 분석된 이후에 대상에 맞는 설법과 방편으로 마침내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면 포교방법에 더욱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

2) 공통점

불교는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으로 정의된다. 『잡아함경』에서 붓다는 “나는 단지 고(苦)과 고(苦)로부터의 해방만을 가르친다”²⁷⁾라고 말하고 있다. 붓다는 중도(中道)를 깨달으면서 6년 고행을 포기했는데, 이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말한다. 중도 사상은 대승불교시대로 접어들면서 공(空)사상으로 전개 되었다. 이 공사상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에서 강조되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는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주의적인 사상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상대주의적인 가르침은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개념으로, 금강경에서는 즉비(卽非)의 논리를 통해 양극단을 떠난 중도 즉 공(空)의 도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은 에드워드 테일러, 루이스 모건, 에밀 뒤르켐, 프란츠 보아스 이 네 사람이 ‘창시자들’인데 특히, 에드워드 일러(Edward Bunett Tylor, 1832~1917)는 영국 인류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 19세기 후반에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The Origin of Species, 1858) 출간과

27) 윤희진(2015), 20.

함께 사회과학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타일러는 찰스다윈의 영향을 받아 초기 저작에서는 전파를 중시했지만 점차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진화론적 사상은 미국인류학자 보아스(Franz Boas, 1858~1942)에 의해 비판받았다. 문화는 특정문화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아스는 주장했다. 그는 탁상공론만을 일삼는 기존 인류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현장조사’를 강조했고 “전국 각지의 주요 교육기관에서 인류학적 조사와 교육의 발달을 위한 강령을 마련했다.”²⁸⁾

1931년 보아스는 미국 학술진흥원에서 ‘인종과 진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인종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작다.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좀 더 똑똑하고 강한 의지력을 타고났다거나 정서적으로 보다 차별하다고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연설은 인종차별주의에 맞서 온갖 싸움을 결론내리는 중요한 성명이 되었다.²⁹⁾ 보아스와 그의 제자 루스 베네딕트, 마거릿 미드 등도 서구문화가 명백하게 우월하다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사회의 관습과 관념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³⁰⁾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문화상대주의 개념은 지금까지 문화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조로 남아 있다. 현대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상대주의와 총체론, 비교론적인 관점이 중요시 된다.

문화인류학자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불교 포교사는 공사상의 관점으로 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이 일치한다. 문화인류학자가 사용하는 연구조사방법을 불교포교사가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교의 최종

28) 제리 무어(2002), 73.

29) 제리 무어(2002), 78-79.

30) 캐롤 . 멜빈(2012), 23.

목표에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교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인류학자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의 연구를 통해 불교의 중도사상과 공사상을 더욱 빛낼 것이며, 불교 포교사는 불교를 홍보함으로써 문화인류학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지역 포교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불교포교사와 포교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포교현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필자는 민족지적 연구방법에서 찾고자한 것이다. 문화인류학의 학문적 모토인 상대주의적 관점을 무시하는 기독교와 같은 타종교의 경우는 문화인류학적 방법만을 차용하여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를 배타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에 반해 불교가 전파하고자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상대주의적인 관점 즉, 중도와 공사상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문화인류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불교 포교 연구자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불교포교 연구자와 문화인류학 연구자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 보았다.

6.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불교 포교와 문화인류학의 개념과 역사를 고찰하고, 포교를 위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불교 포교사와 문화인류학자를 비교하여 두 그룹의 차이점과 공통점 및 상호 역할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이며, 이것은 연구자인 ‘사람’

이 연구대상인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다. 불교포교도 또한 이와 같아서 포교사인 ‘사람’이 포교대상인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포교에 문화인류학의 민족지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300백만 불자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포교 방법론은 더 이상 연구실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발표되는 논문이나, 탁상공론적인 토론회에서 토론으로 찾을 수 없다. 포교사는 붓다 시대 당시의 부루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포교 현장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왜 그들이 불교 포교 현장을 떠났는지, 왜 그들이 포교현장을 찾아오지 않는지, 그들이 포교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불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포교 현장에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서 답을 들어야 한다. 답은 ‘사람들’에게 있다. 포교는 포교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불교지식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포교현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관찰하고 물어서 그들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적 질적 연구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수도 없고, 경험적이고, 기술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일반화를 하기에 역부족인 면이 많다. 그러나 포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역적인 양적 연구와 문헌연구에 익숙해져 있는 학자들에게 문화인류학적 질적 연구는 지대방에서나 말하고 넘길 수준 낮은 내용으로 치부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많은 양적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포교 방법을 모색해 왔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포교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듣고 관찰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고, 포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에 모호한 방법들이다. 이제는 포교현장의 소리를 듣고, 포교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포교 방법을 실제로 활용해 보며 시행착오를 거친 최적의 방법

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인류학적 현지조사 방법과 민족지적 질적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숙(2012), 『불교문화』, 서울:정우서적.
- 김영천(2017), 『질적연구방법론I』, 경기도:아카데미프레스.
- 노길명·정태환·김응렬·서용석·현택수(1999),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일신사.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2000),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의 이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편저(1995), 『포교방법론』, 서울:조계종출판사.
- 유태용(2002),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학연문화사.
-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도:아르케.
- 윤호진(2015), 『무아 윤희문제의 연구』, 서울:불광출판사.
- 제리 무어(Jerry Moore), 김우영 역(2002),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서울:한길사.
- 조용환(2016),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경기도:교육과학사.
- 찰스 H. 크래프트(Charles H. Kraft)(2010), 『기독교 문화인류학』, 서울:CLC.
- 캐롤, 멜빈 엠버(Carol, Melsin Ember)(2012), 『문화인류학』 양영균 역, 서울: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한상복·이문웅·김광역(2017), 『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2013), 『선교를 위한 문화인류학』, 서울:이레서원.
- 한국문화인류학회 편(1999),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서울:일조각.
- 한경구·김성례 역(2000),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서울:일조각.
- Crane, J. and Angrosino, M(1992), *Field Projects in Anthropology: A Student Handbook(3rd Ed.)*. U.S.A Illinois:Waveland Press

조용환(1995), 「일상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논총』, 7: 13-22.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1999), 「포교학과의 역할과 학문적 발전방향」, 『僧伽』 16호, 224.

■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for Buddhist Mission:**

Cultural anthropology from a Buddhist missionary perspective

Choi Yun-hee (Ven. Hyoseok)

A buddhist missionary is a person who works to convey the teachings of the Buddha to contemporaries. So the missionary should study the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he mission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Culture is all about the institutions, ideas, and materials that people have created through mental action. Missionary work research is the process of finding answers from people through field surveys. Field surveys begin when a missionary meets strangers in an unfamiliar place. When a missionary meets strangers for the mission, the first thing to do is to create rapport. Cultural anthropologists learn the language of the locals in advance and learn their customs and manners in advance in order to create the rapport. After that, data is collected through participating observation and interview, and qualit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re carried out.

The missionaries and cultural anthropologists have a lot in common with the pursuits and methodologies. The goal of the missionary is to expose the Buddha's teachings of the suffering and the liberation from the suffering and to make people happy and profitable. The goal of cultural anthropologists is to learn different cultures from a cultural relativistic perspective and

respect other culture, reduce contention and harmoniz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anthropologists use the research methods that are being used locally by the missionary for mission work. The purpose is to study how to approach cultural anthropologically in order to broaden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how to use these methods on the frontline of miss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concepts and history of missionary and cultural anthropology first, and after presenting cultural anthropological methods for missionary work, we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role of missionary and cultural anthropologist to examine how anthropological methodology can be used in missionary work.

Keywords ● Mission, Missionary, Cultural Anthropology, Cultural Anthropologist, Ethnography, Method of Mission, Field Work, Participating Observation, Interview, Qualit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 논문투고일 : 2020. 11. 21 ▮ 심사완료일 : 2020. 12. 6 ▮ 게재확정일 : 2020. 12. 10